

### 강기정 “군공항 이전·꿀잼도시 성과… 내년 부강 광주 시작”

#### 광주공항 무안 이전 합의·복합소풍물 3종 본격화 도시철도 공사도로 개방·KTX 증편·도심공원 조성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12·3 비상계엄을 극복한 광주는 군공항 이전 실타래를 풀고 꿀잼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복합소풍물이 착공되는 등 내년 부강한 광주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 시청 중회의실에서 송신년사를 발표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의 밤 광주는 시청사를 통제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무효임을 선언했고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기까지 122일 동안 광주정신을 보여주며 새로운 민주정부를 탄생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광주가 먼저 추진한 AI대지, 공공기관장 임기 일체제, 초등학부 10시 출근제, 산단근로자 조식지원, 전원의 아침밥을 전면도입 하는 등 광주의 복지가 전국화 됐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또 올해를 해묵은 난제를 풀고 새로운 전기를 얻어 호평했다.

강 시장은 “광주의 최대 현안이자 수십년 해묵은 난제였던 광주 군공항 무안 국제공항 이전 문제의 영긴 실타래를 풀었다”며 “광주시는 내년 초 조직개편을 통해 ‘통합광항미래도시본부’를 신설하고 248만평 종전부지, 11만평 규모의 마

복등 탄약고 부지를 광주형 실리코밸리로 조성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상부도로도 지난 22일 개방했다”며 “공사기간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상생카드 10% 추가 환급, 특별보증 시행,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맞춤형 회복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 호남선 증편도 해결됐다”며 “KTX-산천 열차가 1일 2회 증편됐으며 KTX-청통 중편운행을 위한 변전소 개량 사업에도 국비 100억원이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광주가 꿀잼도시로 변하기 위한 기틀도 올해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강 시장은 “더현대광주 복합소풍물 착공에 이어 광전터미널 복합화 사업도 사전협상을 마무리 중이며 어등산 스타필드도 행정절차를 진행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광주는 잠시 들르는 도시가 아닌 머무를 이유가 있는 꿀잼도시로 변모해 갈 것이며 26일부터 복합소풍물상생협회를 가동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마특근린공원, 신용근린공원이 조성되고 있으며 중앙공원을 제1호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빛의 혁명 발원지였던 5·18 사적지는 국가 주도로 보존·활용



되고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광주는 생애 전 과정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추진한 ‘광주형 통합돌봄’은 대한민국 돌봄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며 “이는 2개월 연속 출생 증가율에서 특·광역시 1위를 기록하는 성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반면 광주시는 올해 광주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자원회수시설 임지 후보지 선정과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로 4명의 근로자가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아쉬움을 남겼다.

/전광훈 기자

### 김영록 “AI·에너지수도 전남 대부흥의 길 완성할 터”

#### 대형 국책사업 유치·중위권 수준 경제 도약 “도정 사상 유례없는 대업… 개혁의 한 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23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AI(인공지능)·에너지 수도, 전남 대부흥의 길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청사 브리핑룸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열어 “올 한 해는 말 그대로 ‘변동불거’(變動不屈),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았던 격동의 시간이었다”며 “동시에 절망을 밀어내고 새 희망을 싹틔운 진짜 개혁의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고 예산 사상 최초 10조원 돌파 ▲전남 경제 중위권 도약 ▲국가 미래 견인 중심지로의 도약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전격 합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 ▲전남 전역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오픈AI-SK그룹의 글로벌 AI데이터센터 유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지역 선정 등 올 한 해 굵직한 도정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도정 사상 유례없는 대업을 이뤄낸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그는 새해 전남 대부흥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AI·에너지 수도로서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까지 유치, 글로벌 첨단산업도시 전남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태양광·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수도 방식으로 개발해 발전 수익을 도민과 공유하

는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취지다. 또 “내년을 전남 과학기술 진흥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선도적인 AI·에너지산업에 초격차 기술까지 확보해 대한민국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남의 전통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제조업과 농수산업에도 재생에너지 기반 AI·탈탄소·고부가 기술을 적극 활용해 AI 대전환 초혁신 전남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섬, 역사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전남에 문화콘텐츠와 육해공 교통 인프라를 더해 남해안권 초광역 관광벨트를 완성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남해안권을 지중해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탈바꿈시킬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이순신 호국 문화 관광벨트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민선 7기부터 이어온 도민제일주의 기조를 더욱 강화해 도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하게 만들 ‘사람중심, 현장 중심의 전남형 복지’와 안전문화 실현하겠다”고도 말했다.

원포인트 개혁을 통한 오월 정진 헌법 전문 수록,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전남의 울타리를 넘어 호남의 미래를 결정지를 더 큰 그



림을 그려야 한다”며 “그 첫 단추가 바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이다. 내년 상반기 출범할 광역연합은 40년의 행정 경계를 허물고, 다시 하나가 될 호남을 향한 징검다리다”고 밝혔다.

또 “그 최우선 과제는 오월 정진의 헌법 전문 수록이다. 빛의 혁명, 그 송고한 뿌리인 5·18의 가치를 헌법의 심장에 새겨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야 한다”며 “나아가 지방분권 국기를 헌법에 천명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예산과 권한을 가진 진정한 지방자치의 틀이 마련된 순간, 우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길로 즉시 나아가갈 것”이라며 “꿈꾸는 자만이 미래를 열고, 도전하는 자만이 길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염선호 기자

## 광주시, 청렴도 2등급... 특·광역시 최고

#### 체계적 정책으로 1계단 끌어올려... 시민 체감도 크게 개선 평가결과 분석 내년도 대책 수립... ‘청렴 1등급’ 지속 노력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달성,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광주시는 최근 2년간 3등급에 머물렀던 청렴도 종합등급을 2등급으로 끌어올려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의 성과를 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 점수 60%, 청렴노력도 점수 40%를 반영한 뒤, 부패사건 발생에 따른 감점을 적용해 종합 등급을 산정했다.

광주시의 청렴체감도는 지난해 5등급

에서 올해 3등급으로 두 계단 상승했다. 특히 시민의 부패 경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외부체감도-부패경험’ 항목에서 감점이 줄었다.

광주시 청렴노력도는 2년 연속 2등급을 유지했으며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부패취약 분야 개선, 청렴 교육, 공공재정 부정수급 점검 등 평가지표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 관심과 노력도’ 부문은 2년 연속 만점을 기록했다.

광주시는 최근 ▲부패 취약 부서 집중점검 등 특별관리 ▲민·관 합동 점검 ▲통합 신고체계 운영 ▲조직 내 감찰·부당 지

시 예방 ▲준중과 신뢰의 조직문화 확산 등 다각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했다. 또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청렴을 행정의 기본 가치로 정착시켰다.

광주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분석해 2026년도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하고, 반부패협약체 운영을 통해 취약 분야를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 구현을 목표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향한 노력을 이어간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청렴체감도 개선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바로잡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렴을 행정의 기본원칙으로 삼아 시민 신뢰를 더욱 높여겠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 광주시, 온실가스 감축 시민에 8.7억원 지급

#### 광주지역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률 56% 전국 최고 상반기 19만가구 3만4220t 감축... 소나무 376만그루 효과 5% 이상 에너지절감 4만4269가구에 7억4000여만원 지급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4만4269가구에 탄소중립포인트로 7억4000여만원을, 자동차 운행거리를 감축한 1822명에게는 1억3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시민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동차·녹색생활실천 3개 부문이 있다.

에너지 부문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을, 자동차 부문은 운행거리 절감, 녹색생활실천 부문은 일상에서의 에너지와 자원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

한다.

현재 광주시 에너지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는 37만4000여 가구이며, 이는 가입률 56%로 전국 최고이다. 이들 가운데 19만6577가구가 2025년 상반기에 에너지를 절감해 온실가스 3만3553t 감축했으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369만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에 해당한다. 특히 전년 대비 5% 이상 에너지를 절감해 탄소중립포인트 혜택을 받은 가구는 4만4269가구이다.

2025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차량은 3143대였고, 이 중 1822대가 운행거리를 절감해 667t의 온실가스를 감축

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7만여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에 해당한다. 광주시는 2026년 자동차 부문 사업을 더욱 확대해 5000여대 이상 참여 차량을 모집할 계획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는 연중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가까운 지치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매년 2~4월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더 많은 시민이 에너지 절약 및 대중교통 이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운동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